

한국 사회복지실천 현장 내 기본 실천기술의 실증적 확인 및 분류*

엄 명 용

(성균관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현장과 실천현장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우리의 사회복지사들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실천활동을 분석해 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현재 한국의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669명의 조사 대상자 중 361명이 응답)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천기술이 무엇인가를 한국의 실천현장에 뿌리를 두고 경험적으로 조사했다. 활용도가 높은 기술 132개의 목록을 제시했으며 그 기술들 안에 존재하는 주요 기술 축 7개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다음으로 이들 각 기술 축 안에 존재하는 하위 기술군들이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이들 하위 기술군을 대표하는 핵심기술지표 42개가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실천현장별로 각기 다른 실천기술 축을 확인해 분류하였다. 결과의 함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실천기술, 공통기술요인, 핵심수행기술지표, 실천현장, 실천기술 활용도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실천 분야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 1947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 창설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실천 교육은, 1953년 강남대, 1959년 서울대, 1962년 중앙대 등에 학과가 개설되면서 확대되기 시작하여 2001년 현재는 전국 74개의 4년제 대학에서 연구·교수되는 분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짧지 않은 사회복지교육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복지실천 분야의 교육은 한국 실정에 맞게 토착화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교육이 우리 사회의 필요성으로부터 출발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의 2002학년도 삼성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하여 우리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기보다는 미국형 사회사업 모형을 아무런 여과 과정 없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시작되었다는 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초기의 사회복지실천 교육은 이렇다 할 사회복지실천현장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대학이 먼저 외국의 실천지식 및 방법을 교육하는 상황이었다. 사회복지 교육의 초창기에 도입된 미국형 사회사업 중심의 학문은 그 동안 우리의 현실에 맞게 토착화되지 못함으로써 교육과 현장의 부조화라는 모순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김연옥 외, 1997), 아직도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교육, 실천이론과 현실의 전후가 뒤바뀐 채로 남아 있다(김연옥, 1998: 86)는 지적도 받아 왔다.

실증적인 예로써, 1997년에 실시된 한 연구에서(김연옥 외, 1997), ‘사회복지 교과과정 전반이 한국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교수응답자의 43.8%가 ‘보통이상’으로 평가한 반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 중인 실무자 응답자의 4.0%만이 사회복지 교과과정이 한국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의 사회복지교육 내용이 아직도 토착화되지 못했으며 우리 사회의 현장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교과과정 전반 중에서도 사회복지실천기술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실천현장에서 곧 바로 활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내용과 실천현장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기술들과 관련된 교육이야말로 실천 현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육되는 기술들의 실천성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학문의 적실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분야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학문의 적실성이란 우리나라 현실 여건에 맞는 학문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이어야 하고, 둘째, 현장 중심적이어야 하며, 셋째, 우리 나름의 논리와 언어, 방법론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김정근·김영기, 1996: 13-24).

사회복지실천 분야에서 학문의 적실성 구현이 더욱 요청되는 이유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실제 삶 속에서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상대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실제 삶 속에서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사회·경제·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클라이언트들이 호소하는 문제에 대한 의미도 사회·문화적으로 정의된다고 볼 수 있다(Gellner, 1992: 68-73). 또한, 클라이언트가 나타내는 문제의 복잡성과 깊이도 사회·문화마다 상이하고,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사회의 제도나 문화에 따라 상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되는 지식과 기술도 사회·문화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다(Gambrill, 1999: 346).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복지 교육은 미국의 실천이론과 기술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이러한 이론과 기술들이 한국의 실천 상황에 얼마나 적용 가능한 것이며 유용한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 실험 또는 검증 작업이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실천기술들이 우리의 실천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즉, 학문의 적실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절한 실천기술들을 확인해 내어 그 기술들을 미래의 사회복지사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학문의 적실성은 확보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우리의 사회복지사들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실천활동에 대한 정

확한 분석이 요구된다(이상균, 1999: 80).

본 연구자는 이러한 과업의 첫 걸음으로서, 현재 한국의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천기술이 무엇인가를 한국의 실천현장에 뿌리를 두고 경험적으로 조사·분류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실천현장의 성격 또는 종류에 따라 필요로 되어지는 실천기술들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각 실천현장의 종류에 따라 강조되어야 할 기술들을 찾아 분류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기술들의 목록들을 개발하여 그 활용도에 따라 순서로 제시한다.

둘째, 실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실천기술에 내재하는 공통기술요인들(기술 축 또는 실천 양식)을 경험적으로 파악한다.

셋째, 각 요인 축(실천 양식)을 구성하는 주요 하위 실천기술군을 찾아낸다. 또한, 여기서 확인된 하위 실천기술군을 대표하는 주요 실천기술 목록을 제시한다.

넷째, 사회복지실천기술 구조를 분석해 확인된 각 실천양식(mode)이 전체 사회복지실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본다. 아울러, 각 실천양식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실천기술군이 각 실천양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알아본다.

다섯째, 확인된 하위 실천기술 군별로 핵심수행기술지표를 선정한다.

여섯째, 실천현장별로 각 기술의 활용도가 상이한지를 알아본다.

2. 선행연구 검토

1) 국내 연구

우리 사회복지실천 현장, 즉, 한국적 상황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천기술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경험적으로 연구해본 시도는 별로 없었다. 다만, 윤현숙(1997)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연구해본 바 있다.¹⁾ 경험적으로 축적된 연구결과가 빈약하다 보니, 사회복지실천기술과 관련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실천기술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1) 윤현숙(1997)은 이를 위해 사회복지 업무의 내용을 크게 5가지 영역(①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② 지역사회 활동, ③ 프로그램 기획 및 행정, ④ 교육 및 조사연구, ⑤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발 등)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0~9개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설정하여 총 23개의 업무영역의 활동내역을 조사하였다.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로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기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사회복지실천기술을 갖춘 자에게 부여하도록 되어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 등)의 제1항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금지재산자·한정재산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전문지식과 기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다. 동조 제2항과 제3항은 사회복지사의 등급(1, 2, 3급)과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국가시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기술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0)는 각 교과목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과 내용을 표준화할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사로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교과과정 내용과 범위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교과목 지침서의 내용 중 ‘사회복지실천기술론’에 대한 교과목 개요에는, “이 과목(사회복지실천기술론)에서는 개인과 집단, 가족의 사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숙지해야 하는 다양한 실천모델과 개입기술, 기법, 지침 등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사례연구와 역할연습을 통해 실천기술과 기법, 지침을 실천 대상에게 적용하고 실제에 개입, 평가하는 연습을 강조한다.”(p. 31)고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개입기술, 실천기술과 기법, 지침 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세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각 교육 프로그램에서 과목 담당 교수가 나름대로 기본기술들을 정의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실천기술의 종류 및 속성에 관한 구체적 학습내용이 결핍되어 있을 경우 사회복지실천 수업 및 훈련을 받고 현장에 나가는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실천기술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사회복지 전공학생들이 현장에서 만나게 될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과연 갖추었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Daws(1994)는 전문인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격증이나 훈련 등이 실제로 실천현장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를 돕는데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사람 대상의 실천전문인 훈련 프로그램이 훈련생들에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대신 현실과 다소 괴리된 기술 훈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내어 교육 내용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국외 연구

미국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공통의 기반을 정의하기 위한 노력들과(Bartlett, 1959, 1970; Gordon, 1962, 1969; Gordon and Schutz, 1977),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통합적이고 일치된 지식기반을 이루는 이론, 실천의 목적, 실천가치, 실천기술들을 정의해 보고자 한 노력들(Goldstein, 1973; Meyer, 1983; Middleman and Goldberg, 1974; Pincus and Minahan, 1973)이 있

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기본 기술들을 현장에 바탕을 두고 경험적으로 명확히 정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 Shulman(1981)은 의사소통, 관계형성, 문제해결 기술들과 관련된 27개의 기술들을 문헌연구들을 통해 확인해 내어 ‘복지사의 원조기술(worker helping skills)’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Bagarozzi(1983)는 ‘원조기술의 계통(hierarchy of helping skills)’이라는 것을 제안했는데, 여기서 그는 원조기술들을 인지기술, 개념화기술, 집행기술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 관련 영역인 가족치료 분야에서 Figley와 Nelson(1989)은 가족치료자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본 기술들을 경험적으로 도출해 내기 위한 시도를 하여 각 가족치료모델별로 기본적이며 중요한 기술들의 목록들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 Shulman(1999)은 개인, 집단,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기술들을 집대성하여 ‘원조기술(The skills of Helping)’이라는 저서를 발표하고 지속적인 갱신작업을 해 오고 있다. 또한, Cournoyer(2000)는 실천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기본 기술들을 통합·합성하여 사회복지실천 기술들을 제시한 바 있다. Cournoyer(2000)는 실천기술들의 목록과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제시한 실천기술들은, 사회복지실천의 각 국면과 과정들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과업에 필요한 기술들, 가장 효과적인 전문 원조자(사회복지사)들이 나타내는 촉진적 자질(facilitative qualities),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성들 등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는 국외에서도 현장 속에 필요한 실천기술들을 경험적으로 이끌어낸 연구가 매우 희박한 가운데, 미국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각 국면, 과정, 전문직의 정체성, 전문가들의 자질 속에서 발굴된 실천기술들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는 현장에 중심을 둔 살아있는 실천기술들의 목록을 작성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 예로서, Gambrell(1999)은 실증에 바탕을 둔 실천(evidence-based practice)을 주장하였다. 실증에 바탕을 둔 실천이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실제로 유용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명된 지식과 기술들을 확인하여 그 것들을 교육시킴으로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보다 많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자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Sanfort(2000)는 미국내 전반적 사회복지개혁이 있었던 1996년 이후 연방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기본을 둔 사회복지체계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율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체계로 변환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교육방향의 전환과 더불어 교육해야 할 실천기술의 변환을 주장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변화하는 사회복지정책 맥락 속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의 훈련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은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롭고 현실적인 기술들을 강의해야 한다고 Sanfort(2000)는 주장하였다. Patterson, Williams, Grauf-Grounds, and Chamow(1998)는 현재 급변하는 가족치료 분야에서 교육기관에서의 훈련과 현장의 실제 유능한 실천가 역할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뷰 기술, 사정 기술, 진단 기술, 목적 설정 기술, 치료계획수립 기술, 개입 기술, 문제 해결 기술, 종결 기술 등을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가족치료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 일로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 자극과 도전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 정리해 볼 때,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실천 내용을 경험적으로

발굴해 내 그 것들을 교육 내용에 반영하려고 한 시도는 많지 않았다. 사회복지 실천은 응용·실천 학문임에 비추어 각 사회의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경험적으로 확인해 내 그 기술들을 연구 및 교육 내용에 반영하는 일, 즉 학문의 적실성을 확보하는 일은 사회복지실천 영역이 당면한 중요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앞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2단계 조사로 구성되었다. 제 1단계 조사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기술들을 초점집단을 통해 확인해 내는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지역복지, 정신사회사업, 행정, 후원·홍보, 자원봉사 등의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총 21명을 초점집단 구성원으로 차출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본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로서 연구 시행 당시 각자의 근무 기관에서 2년 내지 5년 동안 근무한 사회복지사들이었다.

둘째, 총21명의 사회복지사들을 4-5명으로 구성된 네 개의 초점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일상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천기술들을 확인해 내도록 하였다. 각 초점 집단은 가급적 동일 또는 유사 실천 영역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네 개의 초점 집단 모임은 1주일 간격으로 각각 이뤄졌다. 전번의 초점 집단에서 확인된 실천기술의 목록들 중 구체성이 부족한 것들은 다음 번 초점 집단 모임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내용상 약간의 수정, 삭제, 또는 첨가가 있었다. 네 개의 초점 집단을 통해 총 127개의 실천목록들이 확인되었다.

셋째, 확인된 총 127개의 실천목록들에 대한 개념분류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작업은 본 연구자와 3명의 대학원생으로 이뤄진 연구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연구회의에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목록들을 의미가 손상되거나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의 목록으로 통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천기술의 목록들을 거시(macro), 중간(mezzo), 또는 미시(micro) 수준²⁾ 중 어느 수준에서 서술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거시수준이나 중간 수준에서 실천기술의 목록을 결정할 경우 미시수준의 상세한 기술목록들이 거시나 미시 수준의 목록에 함몰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미시수준에서 기술목록들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총 92개의 실천기술목록들이 확정되었고, 이들 목록들은 그 내용 및 성격에 따라 6개의 실천기술군³⁾으로 분류되었다.

2) 예를 들어 ‘인터뷰기술’은 인터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대표하는 macro수준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와의 의사소통기술’은 앞의 ‘인터뷰기술’보다는 범위가 좁은 mezzo수준의 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공감기술’, ‘수용·설득 기술’, ‘적극적 경청기술’, ‘해석기술’, ‘요약기술’ 등은 최하위의 micro수준에 속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초점 집단으로부터는 가족 대상의 실천에 필요한 기술들이 도출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21명의 초점 집단 구성원을 통해 수집된 실천기술목록들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천기술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 교육과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8개의 대학 교재들⁴⁾에 소개되어 있는 중요 실천기술목록들 중 앞서 초점 집단을 통해 확인된 것들과 중복되지 않는 실천기술 목록 125개를 찾아냈다. 125개의 실천기술 목록 중 13개의 실천기술들은 가족대상 사회복지실천 기술군으로 별도로 분류되어 앞서의 6개 실천기술 군과 합쳐져 전체 목록은 7개의 실천기술군이 되었다. 교재들에서 확인된 나머지 실천기술목록들은 내용별로 앞서 확인된 6개의 기술군들에 따라 분류되어 초점 집단을 통해 확인된 기술목록들과 합쳐졌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217개의 실천기술항목이 마련되었다.

제 2단계의 조사는 제 1단계에서 확인된 실천기술의 목록을 정리하고, 이것들과 응답자의 신상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었다. 응답자들은 주어진 사회복지실천기술 목록들을 검토한 후 이들 목록들이 자신의 실천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활용되는지를 5점의 리커트 형태 척도⁵⁾로 답하도록 요구되었다. 제 2단계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영역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기술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다양한 실천 영역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연구자는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전국의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시설, 병원(일반 및 정신) 등의 전국 명단을 각 협회, 단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확보하였다. 각 기관을 대표하는 응답자 1명씩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는 전국의 각 기관의 기관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그 기관에서 업무 경험이 가장 풍부한 사회복지사 한 명을 선정하여 발송된 설문지에 응답한 후 반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는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기술들을 비교적 많이 활용해본 사람들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각 기관에 설문을 발송할 때는 응답률을 높이고자 5천원 권 문화상품권을 동봉하였다. 발송된 설문지는 종합사회복지관 356부, 노인복지관 107부, 장애인복지관 85부, 정신보건센터 46부, 사회복지시설 41곳, 사회복지사를 두고 있는 병원 34 곳으로서 총 669부였다.

발송된 총 669부의 설문지 중 361부가 응답되어 54.0%의 응답률을 보였다. 복지기관 유형별 발송부수 및 응답부수의 내역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 3) 연구회의를 통해 개념적으로 분류된 6개의 실천기술군은 다음과 같다. ① 개별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원조기술, ② 집단대상의 실천기술, ③ 사례관리와 지역사회복지 실천기술, ④ 자원봉사관련 업무수행기술, ⑤ 사무 활동기술, ⑥ 프로그램평가 및 종결기술 등.
- 4) 윤현숙 외(2001)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전재일·이성희(2002).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김혜란 외(2001).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전재일·이성희(2002). 집단실천기술론; 김영모(2001). 지역사회복지론; 최일섭·류진석(1996). 지역사회복지론; 최성재·남기민(2000). 사회복지행정론; 김영중(2001). 사회복지행정론 등.
- 5) ① “아주 많이 활용”; ② “많이 활용”; ③ “보통”; ④ “조금 활용”; ⑤ “거의 활용 안함”.

<표 1> 근무기관 유형별 응답자 수 및 비율

근무기관 종류	발송내역		응답내역		응답률 (%)
	발송부수	구성비(%)	응답부수	구성비(%)	
종합사회복지관	356	53.2	196	54.6	55.1
장애인(종합)복지관	85	12.7	53	14.8	62.4
노인(종합)복지관	107	16.0	46	12.8	43.0
정신보건센터	46	6.9	20	5.6	43.5
사회복지시설	41	6.1	20	5.6	48.8
병원	34	5.1	21	5.8	61.8
기타(종류 무응답)	-	-	5	1.4	-
합계	669	100	361	100.0	54.0

성별에 대해 응답한 351명 중 남성은 129명(36.8%), 여성은 222명(63.2%)으로서 여성이 많았다. 사회복지사 자격 종류에 대한 물음에 답한 356명의 응답자 중 1급 329명(92.4%), 2급 15명(4.2%), 3급 1명(0.3%), 자격 없음이 11명(3.1%)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회복지사1급 소유자였다. 응답자들의 현재 직급으로서는, 유효응답자 340명중, 과장급 142명(41.8%), 직원 122명(35.9%), 부장급 32명(9.4%), 대리급 31명(9.1%), 관장급 13명(3.8%)의 순으로 나타나 과장급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의 현재 담당업무를 살펴볼 때, 유효 응답자 344명 중, 직접실천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았고(n=134, 39.0%), 다음으로 행정(n=105, 30.5%), 지역사회(n=82, 23.8%), 후원·홍보(n=15, 4.4%), 자원봉사(n=8, 2.3%)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현재 기관 평균 근무 연수는 4.12년(sd=3.39)이었으며, 이전 기관을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 총 근무 연수의 평균은 6.72년(sd=4.97)이었다.

2) 자료분석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기술들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목록들을 가려내기 위해 ① 각 실천기법 항목별 응답점수의 평균값(Mean)이 낮은 순서로⁶⁾ 목록들을 배열하였다. ② 중앙값(Me)과 최빈값(Mo)을 비교하여 이 두 값 모두에서 낮게 나타난 목록들을 서열상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③ 중앙값(Me)이 3 미만⁷⁾인 항목만을 실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항목으로 하기로 하였다. 문항별 점수의 평균을 통해서만 볼 때는 19문항⁸⁾을 제외한 198문항 모

6) “아주 많이 활용”은 1점, “거의 활용 안 함”은 5점으로 처리됨.

7) 3점은 “보통”, 즉, 많이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사용되지 않는 것도 아님을 의미함.

8) 수화사용 기술; 지역 주민 갈등 중재; 지역사회의 집단 간 분쟁 조정기술; 또래상담 지도 기술; 가족생활 주기표 작성 기술; 지역사회 포럼을 이용한 욕구사정 기술;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기술; 지역사회 구조 및 문제 분석 기술; 집단운영상 역할극 수행 기술; 클라이언트를 재촉하는 기술; 지역

두의 응답점수 평균이 3.0 미만이어서 적어도 198개의 기술들은 실천현장에서 비교적 자주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값이 3 미만인 문항은 총217개의 실천기술목록 중 132개였다. 132번째 항목의 평균값(mean)은 2.591, 중앙값(Me)은 2, 최빈값(Mo)은 2이었다. 133번째 항목부터 136번째 항목까지는 중앙값이 3, 최빈값이 2, 137번째 항목부터는 중앙값과 최빈값 모두 3이었다.

둘째, 앞에서 선정된 132개의 중요 실천기술목록의 근원에 존재하고 있는 공통적인 기술특성을 발견해 내기 위해 132개의 항목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요인분석의 목적은 애초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원들이 개념적으로 임의로 분류했던 각 실천기술군과, 요인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도출해 낸 실천기술의 축(axis)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요인분석 모형 중 공통요인 모형을 선택하였고, 그 중 주축분해법을 선택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할 때는 누적분산비율, 스크리검사,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다.

셋째, 첫 번째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된 사회복지실천의 축(axis) 내에 존재하는 주요 하위 기술군을 찾기 위해 각 실천 축을 구성하는 실천기술들을 대상으로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추출방법은 주축분해법, 공통분 추정치는 다중상관계수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데는 누적분산비율, 스크리검사,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1) 활용도 높은 실천기술 목록

132개 활용도 높은 실천기술 항목 모두를 순서대로 소개하는 데는 많은 지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활용도가 높은 순서대로 66개만을 선정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나머지 항목들은 요인분석의 각 하위 기술군의 항목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에 제시된 결과를 갖고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기술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개략적으로나마 우리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어떤 영역의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활용도가 높은 항목의 상위권에 공문서 작성기술(2위), 예·결산 보고서 작성기술(3위), 기록기술(5위) 등 행정관련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서류작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것은 예산 및 서비스의 제약과 평가에 따른 보고서 요구의 증대 등

사회 역동성 파악기술; 지역사회 의 집단과 협상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기술; 평가를 위한 단일 사례설계기술; 클라이언트에 대한 응급처치 기술(예-장애인 등);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 패키지 사용기술; 가족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과제를 부여하는 기술;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여러 집단과 연합하여 일하는 기술; 행사기금마련 기술(먼저 언급된 항목일수록 활용도가 더 낮은 항목임)

으로 사회복지사의 일상 업무 중 행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족대상 실천 영역에 속하는 기술들이 패널을 통해서서는 도출되지 않아 교재를 통해 13개의 기술목록들을 추출하여 설문에 포함시켰으나 이 중 2개의 항목만 66개의 기술목록에 포함되었다. 우리 실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아직 가족을 단위로 한 실천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프로그램 구성·평가 및 종결(g) 관련 기술도 응답자에게 제시된 총 20개의 문항 중 2개만이 66개의 기술목록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사회복지사들만이 이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2> 실천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실천기술

실천기술 목록	응답 자수	중앙값 (Me)	최빈값 (Mo)	평균값 (Mean)	순서
a51p.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잘 듣는 기술(적극적 경청)	360	2	1	1.6944	1
f20p. 공문서 작성 기술	360	2	1	1.7417	2
f21p. 예·결산 보고서 작성 기술	361	2	1	1.9141	3
a18p. 클라이언트와 친해지는 기술	361	2	2	1.7424	4
g1p. 기록기술	360	2	2	1.8222	5
a52t.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기술	358	2	2	1.8464	6
a9p. 클라이언트 상황 파악을 위한 생활력(life history)조사 기술	358	2	2	1.9944	7
e1p.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자원봉사자를 적절히 배치하는 기술	361	2	2	2.0000	8
a2p.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기술	360	2	2	2.0000	9
f27p.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기술	357	2	2	2.0616	10
e4t. 자원봉사자에게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는 기술	361	2	2	2.0637	11
a53p.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술	360	2	2	2.0667	12
a47p.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하는 기술	360	2	2	2.0694	13
a37p.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한 배려 기술	360	2	2	2.0944	14
a23p.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연결 기술	361	2	2	2.1191	15
b39t. 집단 내에서 신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술	358	2	2	2.1369	16
b36p. 집단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기술	357	2	2	2.1373	17
d7t.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술	361	2	2	2.1413	18
e14p. 자원봉사자의 능력, 처치, 의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기술	361	2	2	2.1440	19
b1t. 성원들의 경험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그들의 감정을 수용하는 공감기술	358	2	2	2.1508	20
b2t. 집단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신을 개방하여 열린 자세로 대하는 기술	358	2	2	2.1536	21

<표 2> (계속)

실천기술 목록	응답 자수	중앙값 (Me)	최빈값 (Mo)	평균값 (Mean)	순서
f9t.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인정, 물적, 사회적 자원 등을 검토하는 기술	361	2	2	2.1579	22
d9p. 지역사회 자원 연결 기술	359	2	2	2.1588	23
f34p. 조직 내 동료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 기술	361	2	2	2.1607	24
a12p. 클라이언트의 표현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술	361	2	2	2.1634	25
b3p. 집단의 초기 단계에서 어색함을 해결하기 위한 워밍업 기술	357	2	2	2.1653	26
a19t.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고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초점화할 수 있는 기술	361	2	2	2.1828	27
d3p. 지역사회 자원 파악, 발굴 기술	360	2	2	2.1861	28
a49p. 클라이언트와의 대화에서의 공감(감정이입)기술	360	2	2	2.1917	29
a5p. 클라이언트 상황 파악을 위한 가계도 작성 기술	360	2	2	2.1944	30
e7p.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관리기술	361	2	2	2.1994	31
f24p. 실습생 슈퍼비전 기술	361	2	2	2.2022	32
d4p. 지역사회 자원 섭외 기술	361	2	2	2.2050	33
a4p. 클라이언트 대상별(예-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 따른 관계형성 기술	359	2	2	2.2145	34
f29p. 조직 내 상사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 기술	361	2	2	2.2244	35
d2t. 개별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문제를 세분화된 서비스들에 연결시켜 주는 기술	360	2	2	2.2278	36
c12t. 가계도 작성 및 사용 기술	360	2	2	2.2278	37
b25t. 클라이언트에게 집단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이해하는 기술	354	2	2	2.2345	38
e12p. 자원봉사자와의 신뢰구축을 위한 공감 및 수용 등의 의사소통 기술	361	2	2	2.2410	39
f25p. 사회복지 관련 웹 정보 검색기술	361	2	2	2.2410	40
a45p.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요약하는 기술	360	2	2	2.2500	41
f1p. 프로포잘 작성 시 글을 잘 구성하는 기술	360	2	2	2.2500	42
g2t. 수집된 자료들을 평가의 목적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분석하는 기술	360	2	2	2.2500	43
f8t. 프로그램 기획의 대상과 구체적 목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358	2	2	2.2514	44
f22p. 실습생 욕구 파악 기술	360	2	2	2.2528	45
b14p.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설명, 설득하는 기술(성원모집, 집단 구성기술)	358	2	2	2.2542	46
f36p. 팀 간 업무 조정 및 분담 기술	360	2	2	2.2611	47
b11t. 성원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강조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기술	358	2	2	2.2682	48

<표 2> (계속)

실천기술 목록	응답 자수	중앙값 (Me)	최빈값 (Mo)	평균값 (Mean)	순서
a14p.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기술	361	2	2	2.2687	49
f11t.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 수행 전략 작성 기술	361	2	2	2.2798	50
a54t.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상황에 적절하게 사회복지사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통제 기술	360	2	2	2.2861	51
c3t. 가족문제의 사정을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하는 기술	358	2	2	2.2877	52
a8p. 클라이언트 상황 파악을 위한 사회지지망 확인 기술	359	2	2	2.2953	53
f28t. 직접 서비스를 담당자에게 서비스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들을 증진시키는 기술	360	2	2	2.3000	54
a30t.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간 의사소통이 정확한지 상호 확인을 위한 질문 기술	361	2	2	2.3075	55
f2t. 지원 획득에 성공했던 프로포절을 입수하여 분석해 보는 기술	360	2	2	2.3167	56
b21t. 적극적 경청과 반응하기와 같은 기본적인 대인관계기술을 성원들에게 가르치는 기술	357	2	2	2.3249	57
b16t. 집단에서 사회복지사와 성원들 사이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 분담하는 기술	356	2	2	2.3287	58
f19t. 서비스 활용을 높이기 위한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구축 기술	361	2	2	2.3296	59
b13t. 성원들이 집단에서의 경험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는 기술	357	2	2	2.3305	60
b19t. 성원들이 집단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적합한 반응들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기술	358	2	2	2.3324	61
f3p.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 문구를 작성하는 기술	360	2	2	2.3333	62
f23p. 실습생 배치 기술	360	2	2	2.3333	63
a39p. 클라이언트와의 사소한 대화과정에서도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	359	2	2	2.3343	64
d1p. 사례 발굴 및 확보기술	360	2	2	2.3417	65
a36t. 클라이언트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면접을 비공식적인 대화로 시작하는 기술	360	2	2	2.3417	66

2) 요인 분석 결과

(1) 실천기술 축(axis) 찾기를 위한 요인분석

활용도 높은 132개의 실천기술의 내부에 존재하는 실천기술군을 경험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공통요인 모형 방법 중 주축분해법을 선택하였다. 요인분석의 대상인 132개의 실천기술은 보통(평균 “3”점)보다 많이 사용되는 것들로서 분포의 모양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최대우도법에서 요구되는 다변량정규분포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주축분해법을 사용했다. 초기 공통분 추정치인 다중상관계급

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의 크기가 대체로 0.5에서 0.8정도로 나타나 활용도 높은 132개의 기술들은 공통요인분석의 대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초기 공통분 추정 이후, 스크리 검사(scree test)와 해석가능성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스크리 검사는 요인의 분산비율간의 차이를 나타낸 도표로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의 분산차이가 작아지기 직전인 7번째 요인을 적절한 요인 수로 잠정 결정하였다. 이것은 자료수집과정에서 개념적인 분류 차원에서 실천기술 군을 7개로 나누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보다 적절한 요인구조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 적절한 요인 수(n)의 범위를 $n\pm 1$ 로 잡고 7요인모형에 대한 경쟁모형으로 6요인 모형과 8요인 모형을 탐색적 차원에서 각각 분석하였다. 이는 나중에 이들 중 실천기술의 요인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모형을 최종 요인구조로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해석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각회전 중 Varimax기법을 사용하여 각 요인모형을 회전시켰으며, 이 방법이 갖고 있는 단점⁹⁾을 보완하기 위해 요인척도 간 상관 추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요인 구조들이 어느 정도 겹치는지를 검토하였다.

<표 3> 실천기술 축 찾기를 위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모형	요인번호	요인 명	항목	제거된 항목
6요인 모형	1	개별대상 개입기술	35개	2개
	2	집단대상 개입기술	26개	
	3	가족대상 개입기술	8개	
	4	지역사회자원 활용기술	20개	
	5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기술	20개	
	6	조직관리기술	21개	
7요인 모형	1	개별대상 개입기술	35개	4개
	2	집단대상 개입기술	26개	
	3	가족대상 개입기술	8개	
	4	지역사회조직 기술	8개	
	5	자원봉사자 관리기술	10개	
	6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기술	20개	
	7	조직관리 기술	21개	
8요인 모형	1	개별대상 일반기술	30개	11개
	2	개별대상 감정이입기술	3개	
	3	집단대상 개입기술	25개	
	4	가족대상 개입기술	8개	
	5	지역사회조직 기술	8개	
	6	자원봉사자 관리기술	10개	
	7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기술	20개	
	8	조직관리 기술	17개	

<표 3>은 각 요인 모형의 주요 축을 나타낸다. <표 3>에서 ‘요인 명’은 주요 실천기술군(축)의 내용

9) 사회현상에서 요인들 간 상관성이 전혀 없다는, 즉, 직교성을 갖는 경우는 드물에도 불구하고 Varimax 기법은 그러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을 의미하며, ‘항목 수’는 주요 축을 구성하고 있는 실천기술의 수를 의미한다. ‘제거된 항목’은 요인부하량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2개 이상의 요인에 동시에 묶여있어 제거된 기술의 개수를 나타낸다. 각 요인 모형을 비교해 보면, 6요인 모형이 각 실천양상(mode)을 대표하는 기술요인들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7요인 모형에서는 6요인 모형에서 나타난 ‘지역사회자원 활용 기술’이 ‘지역사회조직 기술’ 영역과 ‘자원봉사자관리 기술’ 영역으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8요인 모형은 7요인의 틀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7요인 모형에 있던 ‘개별대상 개입기술’ 영역에서 분리된 ‘개별대상 일반개입기술’과 ‘개별대상 감정이입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대상 감정이입기술’은 내용상 개별대상 개입기술로 흡수될 수 있는 것이며, 문항의 수도 3개로 다른 영역에 비해 빈약해 별도의 기술 축을 구성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 따라서 8요인 모형은 최종 요인구조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6요인 모형과 7요인 모형은 각자 나름대로 실천기술의 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6요인 모형은 7요인 모형의 5번 요인과 6번 요인을 하나로 묶어 주었기 때문에 7요인 모형보다 간명하다. 반면에 7요인 모형은 6요인 모형에 비해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다. 모형의 간명성(parsimony) 측면에서는 6요인 모형이, 모형의 설명력(explanation power) 측면에서는 7요인 모형이 보다 적절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들이 실천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천기술의 영역을 탐색적으로 밝힘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으므로 간명성보다는 설명력을 택하는 것이 연구 목적에 더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7요인 모형을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축을 설명하는 최종 요인구조로 결정하였다. 7요인모형을 선택함에 있어 총 132개의 실천기술 목록 중 4개의 기술문항¹⁰⁾은 특정요인에 묶이지 않거나 요인 부하량이 매우 낮아서 제거되었다.

<표 4> 요인간 상관행렬

기술 축	I	II	III	IV	V	VI	VII
축 I: 개별대상 개입 기술	1.000						
축 II: 집단대상 개입 기술	.488	1.000					
축 III: 가족대상 개입 기술	.386	.350	1.000				
축 IV: 지역사회조직 기술	.205	.205	.193	1.000			
축 V: 자원봉사자관리 기술	.279	.408	.259	.252	1.000		
축 VI: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기술	.176	.304	.249	.178	.412	1.000	
축 VII: 조직관리 기술	.302	.404	.241	.208	.432	.467	1.000

<표 4>에 7개 축 사이에 개략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는 상관행렬이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나타난 수치를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상관계수가 없어 사회복지실천 기술의 축들이 서로 어느 정도의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상관을 보이는 축들도 없어, 이들 실천기술의 축들이 서로 별개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축 I 과 축 II간의 상관계

10) “b30. 강사 섭외 기술”, “d24. 욕구사정을 위하여 기존의 자료·사회지표 등을 이용하는 기술”, “f16. 행사활동 사진 및 비디오 촬영 기술”, “g12.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워커에게 의뢰하는 기술.”

수가 .488로 가장 크다. 즉,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과 집단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 간의 공통적 측면이 어느 정도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축Ⅲ과도 적절한 상관을 이루고 있어, 직접 실천 혹은 임상적 개입에 요구되는 기술들 간의 관련성이 이들과 간접적 실천기술들 간의 관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이 축Ⅵ과 축Ⅶ이었다(상관계수=.467). 즉,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기술과 조직관리에 요구되는 기술이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와 조직관리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행정 분야에 속한 영역인 것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기술 축 간의 경험적 관계는 적절한 것이라 판단된다.

(2) 각 요인 축에 존재하는 주요 실천기술 군

앞서 확인된 7개의 주요 실천 축별로 각 축을 구성하는 주요 하위 실천기술 군을 찾기 위해 축별로 각각의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각 하위 실천기술군을 구성하는 실천기술들을 제시하였다.

① 개별대상 개입기술의 하위기술 군

개별대상 개입기술에 포함된 35개의 기술문항을 갖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요인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요인에 묶인 문항의 내용은 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정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들이었다. 따라서 제 1요인을 ‘사정(assessment)기술군’이라 명명하였다. 제 2요인은 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작업할 때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반응하는 기술들과 관련된 내용들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제 2요인은 ‘감정 개입 기술군’이라 명명하였다.

<표 5> 개별대상 개입기술 요인분석 결과

요인 설명	실천기술 목록	Factor I	Factor II	Factor III	Factor IV
사정 기술군	a21.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기술	.562	.138	.188	.249
	a8. 클라이언트 상황 파악을 위한 사회지지망 확인 기술	.539	.168	.169	.269
	a12. 클라이언트의 표현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술	.531	.211	.203	.318
	a23.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연결 기술	.509	.241	.178	.029
	a1.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기술	.503	.276	.184	.141
	a32.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도록 돕는 기술	.468	.251	.419	.200
	a22. 클라이언트와의 초기 접촉 이전에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주어진 정보를 검토하고 접거하는 기술	.453	.168	.215	.157
	a9. 클라이언트 상황 파악을 위한 생활력(life history)조사 기술	.445	.143	.193	.241
	a4. 클라이언트 대상별(예-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 따른 관계형성 기술	.420	.117	.108	.287
	a24. 클라이언트와 처음 의사소통할 때 사회복지사가 원조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역할과 책임 등을 설명하는 기술	.414	.191	.341	.132
	a19.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고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초점화할 수 있는 기술	.407	.281	.244	.385
	a2.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기술	.389	.274	.101	.344
	a47.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하는 기술	.336	.437	.280	.177

<표 5> (계속)

요인 설명	실천기술 목록	Factor I	Factor II	Factor III	Factor IV
감정 개입 기술군	a52.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기술	.221	.723	.180	.181
	a51.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잘 듣는 기술(적극적 경청)	.080	.704	.180	.075
	a53.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술	.214	.639	.030	.107
	a49. 클라이언트와의 대화에서의 공감기술	.261	.532	.351	.133
	a54.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상황에 적절하게 사회복지사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통제 기술	.301	.477	.185	.103
	a37.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한 배려 기술	.293	.408	.343	.114
	a40.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감정이입 기술	.235	.352	.309	.349
의사 소통 기술군	a29. 클라이언트의 용어로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다시 표현하는 기술	.187	.057	.585	.247
	a45.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요약하는 기술	.163	.276	.549	.156
	a30.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간 의사소통이 정확한지 상호 확인을 위한 질문 기술	.204	.089	.535	.360
	a27.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해석하는 기술	.245	.118	.477	.265
	a25. 클라이언트와의 신뢰감과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감정과 경험들을 적절하게 노출할 수 있는 자기노출기술	.341	.214	.437	.072
	a44. 클라이언트의 침묵에 적절히 대처하는 기술	.164	.324	.426	.123
	a39. 클라이언트와의 사소한 대화과정에서도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	.159	.280	.396	.379
개입 주도 기술군	a41. 클라이언트 자신의 행동의 영향과 결과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248	.338	.382	.172
	a48. 클라이언트가 초점과 방향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돕는 기술	.365	.348	.370	.127
	a15. 클라이언트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대처 기술	.162	.050	.142	.656
	a16.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거절하는 기술	.156	.076	.174	.576
	a14.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기술	.203	.143	.242	.559
비분류	a7.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알아내는 기술	.370	.138	.214	.472
	a18. 클라이언트와 친해지는 기술	.342	.412	.129	.455
	a36. 클라이언트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면접을 비공식적인 대화로 시작하는 기술	.137	.224	.260	.267

제 3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은 주로 클라이언트와의 의사소통과정 중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표현을 해석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끄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제3 요인은 '의사소통 기술군'으로 명명하였다. 끝으로, 제 4요인의 문항들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과정 중 사회복지사가 개입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개입주도 기술군'이라 명명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개별 클라이언트를 원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술 영역은 크게, 가) 클라이언트를 사정하는 기술, 나)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다루는 기술, 다) 클라이언트와 면담 중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의 의미를 해석하는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라) 원조과정 중 클라이언트에게 끌려 다니지 않고 실천가가 원조의 흐름을 주도하는 개입주도의 기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6> 집단대상 개입기술 요인분석 결과

요인 설명	실천기술 목록	Factor I	Factor II	Factor III
집단 유대감 형성 촉진 기술군	b36. 집단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기술	.717	.146	.333
	b39. 집단 내에서 신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술	.601	.289	.309
	b29. 구성원들에게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인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601	.232	.226
	b34. 집단성원들이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술	.566	.409	.251
	b1. 성원들의 경험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그들의 감정을 수용하는 공감기술	.450	.379	.255
	b21. 적극적 경청과 반응하기와 같은 기본적인 대인관계기술을 성원들에게 가르치는 기술	.442	.328	.368
	b25. 클라이언트에게 집단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이해시키는 기술	.383	.335	.309
	b19. 성원들이 집단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적합한 반응들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기술	.343	.552	.319
집단 관리 기술군	b6. 구성된 집단을 종결까지 유지시키는 지도기술(leading skills)	.200	.633	.317
	b18. 세션이 종결될 때 그 세션의 내용들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기술	.290	.630	.184
	b20. 구성된 집단을 종결까지 유지시키는 성원 보유·충원 기술	.248	.589	.345
	b9. 집단에서의 갈등을 이해하고 적절히 다루는 기술	.342	.557	.302
	b33. 성원들의 진술을 명료화하고 요약하는 기술	.511	.521	.119
	b8. 집단을 구성하기 전, 집단목적과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고려한 세심한 계획을 세우는 기술	.303	.511	.257
	b28. 집단과정의 상황들을 관찰하고 확인하는 기술	.547	.432	.191
	b10. 집단 프로그램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기술	.318	.432	.311
	b3. 집단의 초기 단계에서 어색함을 해결하기 위한 워밍업 기술	.390	.393	.292
	b2. 집단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신을 개방하여 열린 자세로 대하는 기술	.348	.371	.344
집단 역할 설정 기술군	b41.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집단의 구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내는 기술	.490	.327	.181
	b12. 집단 성원에게 각각의 역할에 맞는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기술	.285	.224	.598
	b13. 성원들이 집단에서의 경험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는 기술	.147	.119	.585
	b16. 집단에서 사회복지사와 성원들 사이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 분담하는 기술	.221	.388	.558
	b11. 성원들끼리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기술	.388	.310	.534
	b14.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설명, 설득하는 기술(성원모집, 집단 구성 기술)	.377	.332	.513
비 분류	b15. 성원들이 배운 것을 통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216	.337	.506
	b22.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위하여 세션 동안 음식물을 이용하는 기술	.237	.167	.179

② 집단대상 개입기술의 하위기술 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26개의 개입기술들을 유사한 영역별로 구분하기 위해 이들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기술들이 크게 3가지 차원으로 나뉘었다. <표 6>에서, 첫 번째 요인은 집단구성원들이 집단 속에서 상호 유대감을 형성하여 집단의 목표에 함께 도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기술들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제 1요인은 ‘집단 유대감 형성·촉진 기술군’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실천가가 집단이 종결까지 잘 유지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요인은 '집단관리 기술군'으로 명명하였다. 제 3요인은 집단 구성원들의 역할 설정 및 의무 부여와 관련된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요인은 '집단역할 설정 기술군'으로 명명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볼 때, 일선의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집단 대상의 실천을 할 때 사용하는 주요 실천기술의 영역은, 가) 집단의 유대감 형성을 촉진하여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기술, 나) 집단 운영 과정 중 집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적절히 처리하여 집단이 종결까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기술, 그리고, 다)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 내에서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일들을 명확히 설명해 주는 기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가족대상 개입기술의 하위기술 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8개의 개입기술들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 결과, 2가지 차원의 기술군이 나타났다. <표 7>에서, 첫 번째 기술군은 주로 가족의 문제나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과 자원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가족사정 및 자원연결 기술군'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기술군은 가족 사정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의 사용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개별과의 실천 속에 포함되어 있던 가계도나 생태도 작성 관련 기술들이 모두 가족대상의 실천 기술 쪽에 편입되어 둘째 기술군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가족 사정에 필요한 '도구활용 기술군'으로 명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에 포함된 기술의 내용이 주로 가족사정 단계에서 가족의 문제 및 역동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기술들이라면, 두 번째 요인에 포함된 기술들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실천기술론에서 소개되어 온 가계도와 생태도를 그리는 기술들이다. 현장의 사회복지실천가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러한 기술들을 자주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가족대상 개입기술 요인분석 결과

요인 설명	실천기술 목록	Factor I	Factor II
가족사정 및 자원연결 기술군	c1. 가족과의 초기면접에서 각각의 가족 성원들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기술	.808	.198
	c2.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들의 상호작용 패턴을 확인하는 기술	.800	.274
	c3. 가족문제의 사정을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하는 기술	.765	.326
	c9.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 동원하여 가족에게 연결시키는 기술	.613	.272
도구활용 기술군	a5. 클라이언트 상황 파악을 위한 가계도 작성 기술	.184	.827
	c12. 가계도 작성 및 사용 기술	.410	.757
	a6. 클라이언트 상황 파악을 위한 생태도 작성 기술	.221	.756
	c11. 가족의 생태도 작성 및 사용 기술	.433	.687

④ 지역사회조직 기술의 하위기술 군

지금까지 분석한 실천기술은 소위 직접적 실천 혹은 임상사회복지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다. 보다 간접적인 실천영역이라 볼 수 있는 지역사회 대상 실천과 관련된 기술들 8개를 갖고 요인분석 한 결과 이들 기술들이 크게 2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표 8>에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첫 번째 요인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파악·섭외·연결·관리해 주는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요인을 '지역사회 자원 섭외·파악 기술군'이라 명명하였다. 둘째 요인은 클라이언트의 복잡한 욕구들을 분류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이들과 앞서 발굴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들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이 요인은 '사례관리 기술군'으로 명명하였다. 지역사회 대상 실천의 기술 영역을 요약하면, 첫 째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지역사회에 자원을 파악, 섭외, 발굴하고 이들 자원들 끼리 연결하는 지역사회 자원 관리 기술 영역이고, 둘째는 이렇게 확보된 지역사회 자원과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연결해 주는 기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를 조직화하여 지역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보다 거시적인 노력이나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을 중재하려는 노력 등은 잘 활용되지 않는 기술군¹¹⁾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표 8>의 내용 속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지역사회 대상 실천 기술의 영역은 교육과정 상 사회복지실천기술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지역사회 대상 실천기술 요인분석 결과

요인 설명	실천기술 목록	Factor I	Factor II
지역사회 자원 섭외·파악 기술군	d4. 지역사회 자원 섭외 기술	.857	.258
	d5. 지역사회 자원 관리 기술	.828	.274
	d9. 지역사회 자원 연결 기술	.667	.408
	d3. 지역사회 자원 파악, 발굴 기술	.589	.555
사례관리 기술군	d2. 개별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문제를 세분화된 서비스들에 연결시켜 주는 기술	.229	.881
	d1. 사례 발굴 및 확보기술	.261	.673
	d7.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술	.341	.566
	d8. 클라이언트 또는 프로그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최종 의사결정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	.409	.429

⑤ 자원봉사자 관리기술의 하위기술 군

최근 자원봉사활동이 부각되면서 자원봉사자 관리와 관계된 실천 활동도 사회복지실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관리와 관련된 10개의 기술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 한 결과 이들 기술들이 4가지 기술 군으로 나뉘었다. <표 9>에서, 첫 번째 요인은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자원봉사자와의 관계유지 기술군'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나 갈등들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이해하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을 '자원봉사자 이해 기술군'이라 명명하였다. 셋째 요인은 자원봉사자 관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원봉사자 교육 방법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자원봉사자 교육 기술군'으로 명명되었다. 마지막 요인은 자원봉사자 개인의 욕구와 사회복지기관의 욕구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원봉사자 배치 기술군'이다. 자원봉사자 관리 기술 영역에서 나타난 하위 기술군들은 자원봉사자 모집 이후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과정과 함께 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들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 관련활동의 초기 단

11) 앞의 각주 7)의 잘 사용되지 않는 기술 목록 참조.

제인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련된 기술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자원봉사자 관리 기술 요인분석 결과

요인설명	실천기술 목록	Factor I	Factor II	Factor III	Factor IV
관계유지 기술군	e12. 자원봉사자와의 신뢰구축을 위한 공감 및 수용 등의 의사소통 기술	.744	.294	.193	.210
	e13.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봉사 유지를 위한 인정과 보상 기술	.706	.170	.230	.297
	e7.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관리기술	.443	.189	.317	.427
자원봉사자 이해 기술군	e2. 자원봉사자와 클라이언트와의 갈등 해결 기술	.178	.715	.218	.141
	e3. 자원봉사자의 정신, 신체적 건강 상태 파악 기술	.194	.597	.210	.275
자원봉사자 교육 기술군	e5. 자원봉사 교육 시 과업수행방법 시범 기술	.134	.253	.733	.144
	e6. 자원봉사 교육 시 흥미유발 기술	.267	.159	.717	.147
자원봉사자 배치 기술군	e14. 자원봉사자의 능력, 처치, 의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기술	.469	.205	.263	.605
	e1.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자원봉사자를 적절히 배치하는 기술	.268	.432	.086	.592
	e4. 자원봉사자에게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는 기술	.304	.475	.248	.481

⑥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기술의 하위기술 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지시설 간 자원 확보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으로도 시설 평가가 도입되면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와 관련된 기술들이 사회복지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된 20개의 기술들을 요인분석으로 분류해 보니 4가지 기술 군으로 분류되었다. <표 10>에 각 요인의 명칭과 그에 해당되는 기술들의 목록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인은 ‘프로포절 작성 기술군’이었다.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외부 자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프로포절 작성 기술은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기술로 파악되었다. 이 기술 군에만 8개의 기술들이 묶인 것을 보면 최근 기금신청에 대한 사회복지조직의 관심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부각된 요인은 ‘프로그램 성과 평가 기술군’이었다. 평가를 위해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그 결과를 활용하는 기술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요인은 ‘프로그램 구성 기술군’이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각종 자원의 검토, 프로그램 대상과 목표에 대한 분석·검토, 프로그램 참여자와의 신뢰구축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검토기술들이 이 요인에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네 번째 요인은 ‘프로그램 홍보기술군’이다.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행사를 위해 필요한 도구를 직접 제작하는 것도 이제는 사회복지 실천가에게 요구되는 기술임을 알 수 있다.

<표 10>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기술 요인분석 결과

요인설명	실천기술 목록	Factor I	Factor II	Factor III	Factor IV
프로포잘 작성 기술군	f5. 프로포잘 작성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기술	.795	.192	.144	.145
	f6. 프로포잘 작성을 위한 예산편성 기술	.761	.174	.190	.155
	f1. 프로포잘 작성 시 글을 잘 구성하는 기술	.694	.361	.156	.096
	f10. 프로그램 목적에 적합한 외부 지원 보조금을 획득하는 기술	.657	.134	.305	.190
	f2. 지원 획득에 성공했던 프로포잘을 입수하여 분석해 보는 기술	.656	.246	.243	.068
	f3.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 문구를 작성하는 기술	.640	.344	.231	.197
	f4. 보조금의 종류, 가능한 보조금과 서비스 계약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기술	.615	.222	.240	.155
	f11.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 수행 전략 작성 기술	.474	.248	.456	.231
프로그램 성과 평가 기술군	g2. 수집된 자료들을 평가의 목적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분석하는 기술	.160	.721	.192	.209
	g4. 평가를 위해 기존의 표준화된 도구 사용 기술	.181	.698	.090	.065
	g5.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기술	.237	.693	.096	.098
	g3. 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새로 개발하는 기술	.270	.601	.071	.168
	g1. 기록기술	.151	.532	.223	.143
	g10. 프로그램 평가로 얻은 정보를 조직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하는 기술	.203	.462	.252	.167
	g20. 서비스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기술	.168	.353	.328	.300
프로그램 구성 기술군	f9.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을 검토하는 기술	.454	.204	.650	.144
	f8. 프로그램 기획의 대상과 구체적 목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440	.202	.638	.108
	f19. 서비스 활용을 높이기 위한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구축 기술	.215	.217	.465	.234
프로그램 홍보 기술군	f15.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는 기술	.208	.210	.224	.801
	f14. 행사 시 필요한 도구 제작 기술	.159	.207	.105	.584

⑦ 조직관리기술의 하위기술 군

사회복지기관의 행정가에게 요구되는 21개의 조직관리기술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4요인 구조가 조직관리기술의 차원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인으로서 ‘인적자원관리 기술군’을 들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된 기술들은 사회복지조직에 종사하는 직원들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건강한 의사결정과정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이 점차 투명화되면서 이 영역을 다루는 기술 활용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실습생 관리기술’이다. 이 요인은 실습생의 욕구를 파악하고 배치·관리하는 기술을 대표하고

있다. 이로써 이제 실습생을 관리하는 기술도 사회복지실천기술의 한 영역으로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예산관리 기술군’이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도 실제 실무현장에서는 일상적인 업무이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요인은 예산 관리와 마찬가지로 실무현장에서 일상적인 업무로서 외부, 내부 공문서들을 작성하는 기술들을 설명한다. 여기서는 이 요인을 ‘문서관리 기술군’이라 명명하였다.

<표 11> 조직관리기술의 하위기술 요인분석 결과

요인설명	실천기술 목록	Factor I	Factor II	Factor III	Factor IV
인적자원 관리 기술군	f35. 직원 간의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기술	.774	.152	.152	.147
	f34. 조직 내 동료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 기술	.767	.010	.117	.187
	f30. 클라이언트의 문제로 소진 상태에 있는 직원들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기술	.719	.162	.045	.226
	f36. 팀 간 업무 조정 및 분담 기술	.697	.195	.225	.118
	f33. 워커들 간의 팀 구성 기술	.688	.205	.167	.009
	f32. 업무 할당과 실행을 위해 워커의 개인 및 그룹별 목표 설정 기술	.674	.230	.106	.103
	f27.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기술	.662	.069	.133	.304
	f38. 참여적 의사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	.658	.222	.207	.139
	f29. 조직 내 상사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 기술	.657	.166	.121	.293
	f28.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업무자의 서비스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들을 증진시키는 기술	.649	.298	.143	.226
	f31. 다른 전문직과의 업무 조정 및 교섭 기술	.619	.146	.075	.131
	f40. 직원의 사기 진작 기술	.611	.205	.225	.015
	f39. 강사와 기관 간의 의견 조율기술	.330	.196	.264	.090
실습생 관리 기술군	f23. 실습생 배치 기술	.190	.911	.154	.052
	f24. 실습생 슈퍼비전 기술	.246	.780	.055	.207
	f22. 실습생 욕구 파악 기술	.245	.696	.158	.250
예산관리 기술군	f42. 예산 편성 기술	.209	.133	.879	.221
	f43. 예산 집행 기술	.255	.121	.865	.201
문서관리 기술군	f20. 공문서 작성 기술	.204	.212	.212	.765
	f21. 예, 결산 보고서 작성 기술	.253	.192	.345	.640
	f25. 사회복지 관련 웹 정보 검색기술	.272	.256	.032	.296

(3) 사회복지실천기술 구조 및 핵심수행기술지표 선정 결과

① 7개 기술 축의 분산비율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확인된 사회복지실천 기술들을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하위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우선은 총 7개의 축으로 실천기술의 영역을 크게 나누었다. 총 132개로 구성된 ‘활용도 높은 실천기술’이라는 단일영역에서 7개의 축이 각각 차지하는 세부 영역을 요인분산비율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요인분산비율이란, 요인분석 후 각 요인이 전체 요인정보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은 단순히 전체 기술의 개수 중 각 요인에 묶인

기술이 몇 개를 차지하느냐를 설명하는 기술통계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실천기술의 근원에 존재하는 각 하위 기술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이것은 개념적 차원이며 이론적 차원이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요인분산 비율 중 개별대상 개입기술 약 21%, 집단대상 개입기술 약 19%, 가족대상 개입기술 약 16%, 지역사회조직 기술 약 16%, 자원봉사자 관리 기술 약 10%,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기술 약 10%, 그리고 조직관리기술이 약 8%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활용도 높은 사회복지실천 기술요인 중에서 개별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기술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대상 개입 기술에 해당되는 실천기술의 수는 적었지만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비교적 높았다. 이것은 윤현숙(1997: 59)의 연구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향후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업무로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응답결과를 합했을 때 지역사회자원 정보제공 및 연결업무(54.5%),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38.7%)와 함께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21.3%)가 지적된 것에서 나타난 결과와 함께 현장에서 가족상담 및 치료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천 현장에서 실제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가족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실천기술을 크게 직접적 실천기술과 간접적 실천기술로 구분한다면 개인, 집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이 직접적 실천에 속하고 지역사회조직,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조직관리기술 등의 나머지 영역은 간접적 실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다면, 직접적 실천영역에서 활용되는 실천기술의 총 비율은 약 56%였고 간접적 실천영역에서 활용되는 실천기술의 비율은 약 44%였다. 이러한 결과는 윤현숙(1997:54)의 연구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응답이 58.0%를 차지한 것, 그리고 김태성 외(1998)의 연구에서 사회복지사들의 58%가 자신의 업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라고 밝힌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간접적 실천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44%로서 결코 낮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교육현장에서 사회복지실천기술을 교육·훈련할 때 직접적 실천기술과 간접적 실천기술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향후 교육현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참조하여 그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관리 기술이 활용도 높은 전체 기술 중 차지하는 비율이 8%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연구 대상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39.2%가 사회복지전문요원이었던 윤현숙(1997:56)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주요 업무로 행정적 업무처리가 21.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개별상담(20.0%), 사례발견(16.0%), 재정적 자원 지원(12.4%),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8.2%)의 순이었다.

② 주요 기술축 내 하위 기술군의 분산비율

다음으로 이들 주요 실천기술 축 안에서 하위 기술군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 실천기술 축별로 검토해 보았다. <표 12>에서 ‘실천기술 군’ 항에 속한 내용이 분산비율의 결과다. 우선, 개별대상 개입기술축에서는 사정기술군(29.90%), 감정개입기술군(26.30%), 의사소통기술군(25.05%) 등이 서로 엇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대상 개입기술축에서는 집단유대감 형성·촉진 기술군

(36.38%)과 집단관리기술군(35.81%)이 대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족대상 개입기술축에서는 가족사정 및 자원연결 기술군(50.93%)과 도구활용기술군(49.07%)이 이 영역을 양분하고 있었다. 지역 사회조직 기술축에서는 지역사회자원 섭외·파악 기술군(52.68%)이 사례관리기술군(42.32%)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자원봉사자 관리기술축에서는 관계유지기술군(28.79%), 지원봉사자 이해기술군(25.08%), 자원봉사자 교육기술군(23.65%), 자원봉사자 배치기술군(22.48%) 등이 각각 서로 대등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기술 축에서는 프로포잘 작성기술군이 약 40%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조직관리기술 축에서는 인적자원관리기술군이 약 49%로 절반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조직관리기술 중에서는 인적자원 관리기술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따라서 향후 교육현장에서 인적자원관리기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2> 사회복지실천기술 구조 및 핵심 실천기술 지표

기술 축 (요인분산 비율)	실천기술 군 (요인분산비율)	핵심 실천기술 지표
개별대상 개입기술 (21.15%)	사정기술 (29.90%)	1.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기술 2. 클라이언트 상황 파악을 위한 사회지지망 확인 기술 3. 클라이언트의 표현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술
	감정개입기술 (26.30%)	4.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기술 5.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잘 듣는 기술(적극적 경청)
	의사소통기술 (25.05%)	6. 클라이언트의 용어로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다시 표현하는 기술 7.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요약하는 기술 8. 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간 의사소통이 정확한지 상호확인을 위한 질문 기술
	개입주도기술 (18.75%)	9. 클라이언트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대처 기술 10.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거절하는 기술 11.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기술
집단대상 개입기술 (19.18%)	집단유대감 형성·촉진기술 (36.38%)	12. 집단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기술 13. 집단 내에서 신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술 14. 구성원들에게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인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집단관리기술 (35.81%)	15. 구성된 집단을 종결까지 유지시키는 기술 16. 세션 종결 시 그 세션의 내용들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기술
	집단역할 설정기술 (27.81%)	17. 집단 성원에게 각각의 역할에 맞는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기술
가족대상 개입기술 (15.72%)	가족사정 및 자원연결기술 (50.93%)	18. 가족과의 초기면접에서 각각의 가족 성원들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기술 19.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들의 상호작용 패턴을 확인하는 기술
	도구활용기술 (49.07%)	20. 클라이언트 상황 파악을 위한 가계도 작성 기술

<표 12> (계속)

기술 축 (요인분산 비율)	실천기술 군 (요인분산비율)	핵심 실천기술 지표
지역사회 조직 기술 (15.55%)	지역사회자원 섭외·파악기술 (52.68%)	21. 지역사회 자원 섭외 기술 22. 지역사회 자원 관리 기술
	사례관리기술 (42.32%)	23. 개별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문제를 세분화된 서비스에 연결시켜 주는 기술 24. 사례 발굴 및 확보기술
자원 봉사자 관리기술 (10.03%)	관계유지기술 (28.79%)	25. 자원봉사자와의 신뢰구축을 위한 공감 및 수용 등의 의사소통 기술
	자원봉사자 이해기술 (25.08%)	26. 자원봉사자와 클라이언트와의 갈등 해결 기술
	자원봉사자 교육기술 (23.65%)	27. 자원봉사 교육 시 과업수행방법 시범 기술
	자원봉사자 배치기술 (22.48%)	28. 자원봉사자의 능력, 처치, 의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곳에 배치하 는 기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기술 (9.96%)	프로포잘 작성기술 (39.66%)	29. 프로포잘 작성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기술 30. 프로포잘 작성을 위한 예산편성 기술 31. 프로포잘 작성 시 글을 잘 구성하는 기술
	프로그램 성과평가기술 (29.02%)	32. 수집된 자료들을 평가의 목적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분석하는 기술 33. 평가를 위해 기존의 표준화된 도구 사용 기술 34.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기술
	프로그램구성기술 (17.63%)	35.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인적·물적·사회적 자원 등을 검토하는 기술
	프로그램 홍보기술 (13.69%)	36.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는 기술
조직관리 기술 (8.41%)	인적자원 관리기술 (49.29%)	37. 직원 간의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기술 38. 조직 내 동료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 기술 39. 클라이언트의 문제로 소진 상태에 있는 직원들에게 지지를 제공하 는 기술
	실습생관리기술 (20.50%)	40. 실습생 배치 기술
	예산관리기술(16.70%)	41. 예산 편성 기술
	문서관리기술(13.51%)	42. 공문서 작성 기술

③ 각 하위 기술군을 대표하는 핵심 실천기술 지표

<표 12>의 맨 오른쪽 항에는 각 하위 기술군을 대표하는 42개의 ‘핵심 실천기술 지표’가 제시되었
다. 지표선정 과정에서는 요인부하량을 이용하였다. 요인부하량이란 측정변인이 이론적 구성체를 얼
마나 잘 대표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요인계수로 나타난다. 연구자는 총 23개의 요인에 묶인 실
천기술 129개¹²⁾의 요인계수를 확인한 후 각 요인에서 요인계수가 가장 높은 1-3개의 기술목록을 핵
심 실천기술 지표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표 5>의 개인대상 실천기술 중 ‘사정기술군’에 포함된

12) <표 5> ~ <표 11>의 ‘실천기술 목록’을 참고할 것.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기술’이 갖고 있는 요인부하량은 .562로서 이 기술이 사정기술을 대표하는 지표 중 하나가 된다. 이렇게 개발된 핵심 실천기술 지표는 학교나 일선 실무현장에서 실천기술을 교육·훈련할 때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 국가시험과 같은 자격증 제도시험에서 실천기술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들이 이러한 지표를 근거로 개발될 경우, 그 시험문제는 내용 타당성을 갖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실천현장별 활용기술의 차이 검정 결과

7개의 기술 축을 대표하는 핵심 실천기술 지표에 대한 응답 점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의 실천현장별로 주로 사용하는 기술 축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7개의 기술 축 가운데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기술($p=.650$) 조직관리기술($p=.271$)에서는 사회복지실천 현장별로 기술 활용도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¹³⁾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대상 개입기술은 일원변량분석에 필요한 집단간 변량 동질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p=.039$) 집단간 평균 차이 검정이 불가능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기술 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술 축에서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의 평균 행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 숫자는 평균값이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낸다. 개별대상 개입기술은 정신보건센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반면, 종합복지관에서는 가장 적게 활용되고 있었다. 집단대상 개입기술은 병원에서 활용도가 높은 반면, 종합복지관에서는 가장 낮게 활용되고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역사회조직 관련 기술과 자원봉사자관리기술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조직 관련기술을, 병원에서는 자원봉사자 관리기술을 다른 근무 영역에 비해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사후 짝 비교 결과¹⁴⁾ 정신보건분야와 병원 현장이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 비해 개별대상 개입기술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집단대상 개입기술은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에서보다는 병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보다 통계적으로 더 많은 집단대상 실천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조직기술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보다는 정신보건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정신보건영역, 병원 등이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지역사회대상 실천기술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자원봉사자 관리기술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나머지 모든 실천현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정리하면, 병원과 정신보건 영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영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비해 개별 및 집단실천기술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정신보건 영역 복지사들은 개별, 집단, 지역사회조직, 자원봉사자 관리기술 등 대부분의 실천기술들을 고루 사용

13) 통계적 유의도 판단 수준(α)=.05임.

14) 최소유의차이법(least significance difference)에 의한 검증이었으며 평균차이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임. 통계결과 표는 지면상 생략함.

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다른 현장 근무자들에 비해 많이 사용하는 실천기술이 없었다. 복지관은 지역사회 대상 실천기술과 자원봉사자 관리기술의 사용에 있어 병원이나 정신보건 영역과 사회복지시설 사이에 머물렀다.

<표 13> 실천현장별 활용 기술의 차이

기술 축	근무영역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값	Sig.(p값)
개별대상 개입기술	종합복지관	196	2.3507	.56071	.04005	5.968	.000
	장애인복지관	53	2.2374	.44749	.06147		
	노인복지관	46	2.1969	.44098	.06502		
	정신보건	20	1.8682	.42382	.09477		
	사회복지시설	20	2.1591	.53651	.11997		
	병원	21	1.8831	.49304	.10759		
	Total	356	2.2485	.53668	.02844		
집단대상 개입기술	종합복지관	194	2.3887	.64925	.04661	4.091	.001
	장애인복지관	53	2.3327	.53070	.07290		
	노인복지관	45	2.3444	.55094	.08213		
	정신보건	20	2.0250	.49048	.10967		
	사회복지시설	20	2.2450	.51119	.11431		
	병원	21	1.8571	.48957	.10683		
	Total	353	2.3143	.60999	.03247		
지역사회 조직기술	종합복지관	196	2.2258	.74230	.05302	3.135	.009
	장애인복지관	53	2.4340	.75821	.10415		
	노인복지관	46	2.2120	.63238	.09324		
	정신보건	20	2.0250	.70664	.15801		
	사회복지시설	20	2.7750	.63815	.14269		
	병원	21	2.2857	.75946	.16573		
	Total	356	2.2781	.73608	.03901		
자원봉사자 관리기술	종합복지관	196	2.2283	.60699	.04336	4.080	.001
	장애인복지관	53	2.3491	.64364	.08841		
	노인복지관	46	2.3098	.63724	.09396		
	정신보건	20	2.3250	.65945	.14746		
	사회복지시설	20	2.8875	.71394	.15964		
	병원	21	2.1905	.80197	.17500		
	Total	356	2.2971	.65170	.03454		

(점수가 낮을수록 활용도가 높음을 의미함)

5. 연구의 의의, 활용 방안, 한계점

우리의 실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실천기술을 경험적으로 확인해 낸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들의 개략을 확인해 낸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교육현장과 실천현장을 잇는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현장이 이제까지 자신들이 해온 예비 사회복지사 대상의 기본교육 및 실습 교육 내용과 방향에 확신을 갖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복지실천 교육에서 어떤 기술들이 중점적·필수적으로 강의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지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나가게 되는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의 대략적 기준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은 곧 사회복지사 자격 국가시험의 내용 타당도를 점검하고 높이는 노력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한국적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한국적 사회복지실천은 실천현장의 요구와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고, 지금 우리의 사회복지현장에서 출발하고, 그곳에 토대를 둔 실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상균, 1999: 83).

실천기술의 확대 개발을 위한 방향 설정에도 본 연구 결과가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직관리 기술에서는 직원 간의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개발, 조직 내 동료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 소진 상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지지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적 자원 관리기술에 대한 교육 내용이 강화 내지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을 단위로 한 개입, 즉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현장에서는 감지되고 있으나 이를 실천에 옮길만한 훈련이 부족한 상황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조직 기술 중 지역사회 갈등 세력 간의 조정 등을 포함하는 거시적 실천은 현장에서 거의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지역사회 실천에 대한 교육 내용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우리의 실천 현장에서 간접실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정도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활동 영역의 실천기술을 학교 현장 교육이 얼마나 충실하게 교육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교과과정 상 간접실천에 대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를 높이려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현장에서 지금 필요한 실천활동 중 많은 부분이 간접적 실천이라면 이 부분의 전문성 강화 역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이상균, 1999: 82). 또한, 사회복지사들도 자신들이 담당해야 할 실천 내용에 있어 직접실천이 56%, 간접실천이 44%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천현장별로 활용도 높은 실천기술의 속성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기 원하는 실천현장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학습·훈련받아야 할 실천기술이 달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을 그 현장에 있는 경험 많은 사회복지사 한 명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기술 활용도 확인의 세밀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었다. 둘째,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밝혀진 기술들은 우리 실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뿐, 그 기술들이 우리의 전문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반드시 중요하고 필요한 기술임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현장의 실천 양상이 곧 전문적인 실천기술 수행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 향상과 그것을 통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천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교육을 통해 미리 준비시킴과 동시에 현장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천현장의 다양한 체험과 욕구들이 지식의 체계로 흡수되어야 하고 학계는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개입 기법들을 개발·보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이뤄진 실천기술 확인 노력은 이론체계를 일단 잊혀두고 진행된 것이었다. 우리 실천 현장의 실천기술들이 우리 사회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술들과 이론적 체계를 연결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식과 이론체계의 강화를 통해 이룩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전문화가 전문직의 안정적 성장과 정착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균, 1999: 79).

참고문헌

- 김연옥. 1998.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85-105.
- 김연옥·오정수·최해경. 1997. "사회복지 학사과정의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교수집단과 실무자집단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2: 1-24.
- 김영모. 2001.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고현출판부.
- 김영중. 2001.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학지사.
- 김정근·김영기. 1996.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김정근 엮음.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3-24
- 김태성. 1997.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전문직, 그리고 사회복지 교육제도". 『사회복지연구』, 9: 3-36.
- 김태성·최일섭·조홍식·윤현숙·김혜란. 1998. 『사회복지전문직과 교육제도』. 서울: 소화.
- 김혜란·홍선미·공계순. 2001.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서울: 나남출판사.
- 윤현숙 외. 2001.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서울: 동인.
- 윤현숙. 1997. "사회복지 교육의 발전 방향: 실천현장 분석". 『사회복지연구』, 9: 37-73.
- 이상균. 1999. "한국적 임상사회사업의 모색: 전문화와 토착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4: 65-86.
- 전재일·이성희(편저). 2002. 『집단실천기술론』. 대구: 사회복지개발연구원.
- 전재일·이성희. 2002.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서울: 형설출판사.
- 최성재·남기민. 2000.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출판사.
- 최일섭·류진석. 1996.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0.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개정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Bagarozzi, D. A. 1983. "A cognitive-sociobehavioral model of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and evaluation."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11: 164-177.
- Bartlett, H. M. 1959. "The generic concept in social work education and practice." In A.J.

- Kahn (Ed.), *Issues in American social work*.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59-190.
- Bartlett, H. M. 1970. *The common base of social work practice*. Washington, DCL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Cournoyer, B. 2000. *The social work skills workbook*(3rd. ed.). Belmont, CA: Wadsworth.
- Dawes, R. M. 1994. *House of card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built on myth*. New York: Free Press.
- Figley, C. R. and Nelson, T. S. 1989. "Basic family therapy skills, I: Conceptualization and initial finding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5 (4); 349-365.
- Gambrill, E. 1999. "Evidence-based practice: an alternative to authority-based practice." *Families in Society*, 80(4); 341-350.
- Gellner, E. 1992. *Postmodernism, reason, and religion*. London: Routledge.
- Goldstein, H. 1973. *Social work practice: A unitary approach*.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Gordon, W. E. and Schutz, M. L. 1977. "A natural basis for social work specialization." *Social Work*, 22; 422-426.
- Gordon, W. E. 1962. "A critique of the working definition." *Social Work*, 7; 3-13.
- Gordon, W. E. 1969. "Basic constraints for an integrative and generative conception of social work." In G. Hearn (Ed.), *The general systems approach: Contributions toward a holistic conception of social work*. New York: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pp. 5-11.
- Meyer, C. H. 1983. "Selecting approach practice models." In A. Rosenblatt & D. Waldfogel (Eds.), *Handbook of clinical social work*. San Francisco: Jossey-Bass.
- Middleman, R. and Goldberg, G. 1974. *Social service delivery: A structural approach to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Patterson, J., Williams, L., Grauf-Grounds, C., and Chamow, L. 1998. *Essential skills in family therapy: From the first interview to termination*.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Pincus, A. and Minahan, A. 1973. *Social work Practice: Method and model*. Itasca, IL: Peacock.
- Sanfort, J. R. 2000. "Developing new skills for community practice in an era of policy devolution."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6(2); 183-185.
- Schulman, L. 1981. *Identifying, measuring, and teaching helping skills*. New York: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 Shulman, L. 1999. *The skills of helping: Individuals, families, and groups* (4th. ed.). Itasca. Ill: F.E. Peacock Publishers.

Basic Social Work Practice Skills: Its Empirical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in Korean Practice Fields

Um, Myung-Yong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empirically social work practice skills that are being used most frequently in a variety of social work settings in Korea. Out of 669 questionnaire sent, 361 were return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7 underlying axes from 132 most frequently used practice skills. They were named as: casework skills, group work skills, family work skills, community work skills, volunteer managing skills,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skills, and agency managing skills. Second factor analysis explored underlying sub-factors from each of the seven axes. Researcher identified 42 principal skills that can represent the underlying sub-factors explored in the previous stage. Finally, research checked if the different work settings use different practice skill axes. Study results can be used to connect social work education settings and practice fields in Korea. There has been an argument that Korean social work education has been teaching improper practice skills to the to-be-social workers.

Key words: social work practice skills, common skills factors, principal skills' indicators, practice settings, frequently used skills, skills training.

[접수일 2004. 10. 4. 게재 확정일 2004. 12. 20.]